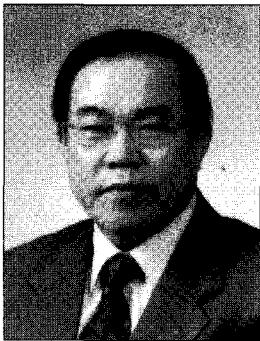


품질 · 환경 기반 정도경영 실천

해외 마케팅 추진 발전 거듭할 터



◀ 김희용
삼광잉크제조(주) 대표이사

그라비아 잉크는 연포장 가공을 하는 업체에 공급되며 연포장 가공을 하는 업체는 식품 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에, 식품 및 제과 업체의 경영 여건에 따라 연포장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잉크 업체는 막대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게다가 달러 환율의 불안전은 잉크 업체들에게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영 실적의 악화를 야기시키면서 잉크 업체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잉크업체들은 항상 고(高)유가 시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부실 거래선에 대한 판매 제한, 기능성 잉크의 지속적인 개발과 품질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잉크는 포장산업의 가장 중요한 소재 중 하나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잉크 업체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은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코를 찌르는 듯한 화학품 냄새, 왠지 모르게 지저분하고 산만할 것만 같은 공장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삼광잉크제조(주)(대표이사 김희용)는 이러한 일반 사람들의 편견을 단숨에 일축시키듯 잉크업체답지 않은 깨끗한 공장 분위기가 방문객의 첫 인상을 사로잡는다. 김희용 사장이 직접 일궈낸, 공장 뒷편에 자리잡은 200여명 남짓한 아담한 빌딩이 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지도... 배추며 상추, 고추 등 채소가 가득한 밭은 '화합'을 강조하는 삼광잉크제조(주)의 가족같은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듯하다.

신뢰 바탕으로 거래 실천

경기도 김포에 자리잡고 있는 삼광잉크제조(주)는 '정직 · 근면 · 화합'이라는 사훈 아래, 1980년 10월 영등포구 양평동에 처음 자리잡았다. 이후 1986년 12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삼광잉크제조(주)

로 자가공장을 보유해 이전한데 이어 올해 3월 협소했던 공장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대지 2,000평에 건평 600평의 김포시 대곶면으로 신축 이전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여년간 삼광잉크제조(주)를 경영하면서 한 순간도 장인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김희용 사장. 화학공학을 전공한 이후 직장생활을 통해 쌓인 다년간의 노하우가 바로 삼광잉크제조(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현재 삼광잉크제조(주)는 OPP, NY, PE, PET 등에 적용되는 그라비아 잉크 전 품목과 산업용 코팅제 및 플렉소 잉크, Epoxy 바닥제, Primer 코팅제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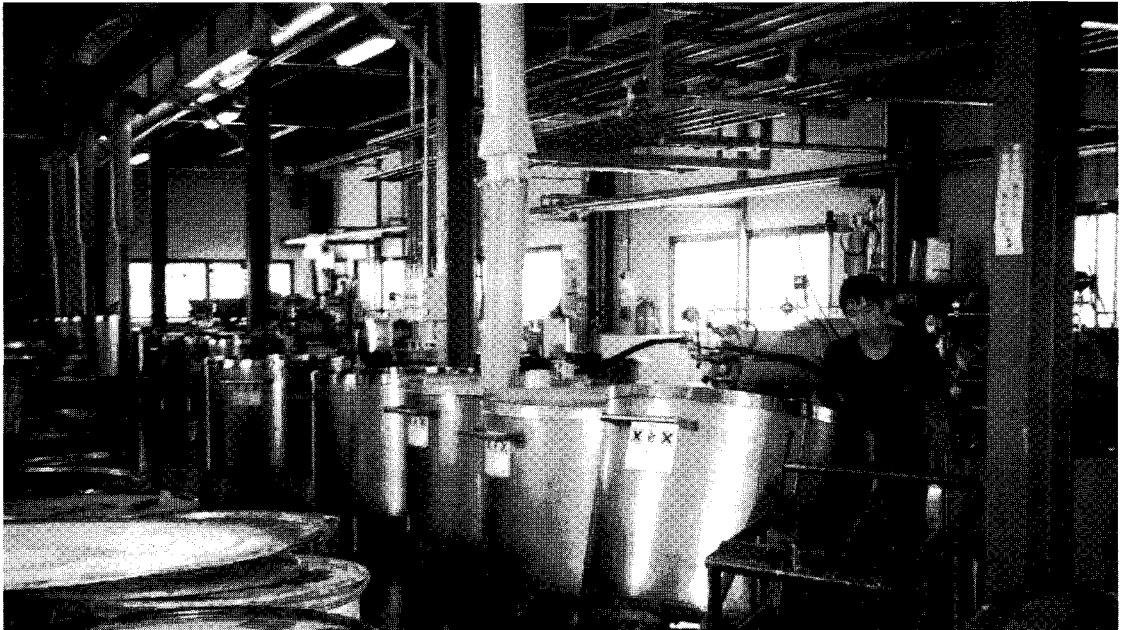
김 사장은 “국내 유상공업(주), 태진산업(주)을 비롯한 원지산업(주), 삼진화학(주), 세미산업

(주), 기린화학(주) 등 다수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한번 맺은 거래가 몇 십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기업간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뢰 경영’에 주력한 결과인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ISO 9001 획득, 품질 인정 받아

삼광잉크제조(주)는 고품질 제품 개발과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을 강조하면서 난립하고 있는 잉크업체 사이에서 작은 성장선이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삼광잉크제조(주)는 홍콩의 KOTTEK과 지속적인 Agency관계를 유지, 수출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ITC 그룹과 기술 제휴를 실시, 해외마케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



▲ 삼광잉크제조(주)의 작업전경

고 있다. 또한 삼광잉크제조(주) 직원들은 매일 아침 전직원이 현장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삼광잉크제조(주)가 이렇게 여타의 포장관련 업체에 비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는 김희용 사장의 경영방침과 직원들의 회사를 내집처럼 생각하는 의식화합이 한몫을 하는 것. 이 외에도 김희용 사장은 매월 1일 전체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체크,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Free meeting 시간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삼광잉크제조(주)는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1/2000 품질경영 인증을 획득, 품질경영에 주력해온 경영으로 업계에서 삼광잉크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또한 중소기업청 중

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전략과제로 국가기술평가원에서 주최한 사업의 일환으로 삼광잉크제조(주) 기술발전팀과 삼척산업대학 화학공학부팀이 공동개발 중인 “OPP용 필름용 수용성 우레탄 그라비아 잉크의 제조기술”에 대해 삼광잉크제조(주) 기술팀이 주제 발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

삼광잉크제조(주)는 앞으로 접착제, 코팅제 등의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도전, 발전을 거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김희용 사장은 “2002년 올해 매출증대 40억 이상을 판매할 것을 목표를 세우고 노동부로부터 Clean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



▲ 주 생산품목(좌)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으로 인정받은 삼광잉크제조(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범용잉크와 수성잉크 등의 개발품목을 확정해 연구해 나갈 방침이며 도전성 전자 잉크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해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현 업계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잉크업계 난립과 무분별한 무허가 업체의 팽배를 가장 심각한 문제거리로 꼽으면서 여전히 소기업 생산직 업종을 회피하는 인식 때문에 인원 수급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표현했다. 또한 "업체간의 과당 경쟁을 줄이고 기술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공략해 글로벌한 시대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희용 사장은 포장업계가 (사)한국포장협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제값받기 운동'과

'불법스카우트 저지 운동'이 조속히 자리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포장업계 종사하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삼광잉크제조(주)라는 사명(社名)이 '환경·품질 기업'의 대명사로 깊이 자리잡힐 때까지 삼광의 김희용 사장과 모든 임직원은 친환경적이고 고품질 제품을 개발이 가능토록 정도 경영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1945년, 국내기술로 최초 개발된 인쇄잉크는 지금까지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업체들은 국내 뿐 아닌 전세계에 공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앞으로 삼광잉크제조(주)가 인쇄업계에 잔존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제품의 독창성과 안전성 확보로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

박초혜 기자